

新羅 王京 慶州의 土地 分割 尺度에 관한 考察

禹 成 勳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李 相 海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 서론 : 연구 동기와 목적

慶州는 1,000년 가까이 新羅의 王京이었다. 신라 왕경의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193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신라 왕경의 모습에 대해 많은 것을 밝혀주었지만 주로 도시의 물리적인 구조 파악에 치중하여 진행된 것이다.

고대 동양 삼국의 도시들은 대부분 일정한 제도에 의해 營建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의 고대 도시들은 주로 『周禮』 「考工記」 匠人條의 제도가 영건에 반영되었으며, 이 제도는 중국 뿐 아니라 우리 나라와 일본의 도시 영건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의 고대 도시들은 당시에 사용하던 尺度를 기준으로 구획·영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도를 반영하여 영건한 도시라면, 영건 당시 토지 분할 제도의 기준이 되었던 尺度를 도시의 구획과 영건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왕경이었던 경주는 신라 당시 일정한 제도 아래 영건된 도시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신라에서 사용하던 尺度가 왕경의 구획과 토지를 분할하는 데 이용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라 왕경의 토지를 분할하였던 尺度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것은, 왕경의 도로와 坊의 규모를 고찰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택지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파악된 택지의 규모는 『三國史記』 '屋舍條'에 기록된 가사제한령과 비교를 함으로써 당시 주택의 규모를 산정하는 데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신라 왕경의 토지 분할과 도로 및 坊 계획에 사용된 尺度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관련 사료의 검토를 통해 尺과 步의 종류 및 크기를 살펴보고, 이렇게 고찰된 尺度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발굴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사용된 尺度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려 한다.

2. 본론

2-1. 사용 尺度의 종류

동양 삼국에서 고대에 사용되었던 尺度의 종류는 그 용도에 따라, 음률을 고정하는 데 사용된 黃鐘尺, 건축·토목·조차·조선 등에 사용된 營造尺, 옷감의 재단이나 바느질에 사용된 布帛尺, 量田과 里程을 계측하는 데 사용된 量田尺, 문묘와 종묘의 제기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 造禮器尺 등이 있으며, 시기별로 周尺(19.91cm), 漢尺(22.8~24.4cm), 高句麗尺(또는 高麗尺, 東魏尺; 35.633cm), 唐尺(29.694cm), 曲尺(30.3cm) 등이 있다.¹⁾ 이 가운데 唐尺이나 高句麗尺이 신라 왕경을 분할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주로 언급되고 있다.²⁾

먼저 신라 왕경의 토지 분할에 唐尺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의 황룡사지 동남쪽에서 진행된 왕경유적지 발굴 결과에 따르면, 왕경유적지 동쪽에 위치한 남북방향 도로의 축이 황룡사지의 축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룡사의 1단계 공사는 569년 주위에 담장을 두름으로써 완료되었다.³⁾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친 황룡사의 중건 가운데 신라 왕경의 도시 구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규모가 컸던 공사

는 제3차 중건이었다. 이 공사는 景德王 13년(754년) 황룡사 鐘이 鑄成된 다음에 시행된 것으로, 9층 목탑 동남쪽에 종루가, 그리고 서남쪽에 경루가 건축됨에 따라 中門과 남측 회랑이 2차 가람배치에 비해 서쪽으로 길어지면서 남쪽으로 옮겨졌다.⁴⁾ <그림 1>

1913년(大正2年)에 제작된 지적원도를 살펴보면 신라 왕경 내에서 이루어졌던 토지 분할 축이 황룡사 축과 서로 일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것은 신라 왕경의 토지 분할 축에 따라 황룡사가 건축되었는가, 아니면 황룡사의 축에 토지 분할 축을 일치시킨 것인가 하는 의문을 낳게 한다. 기존의 견해⁵⁾에 따라 이 부근의 도시계획이 삼국 병합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황룡사의 축이 토지 분할 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왕경 계획의 축은 황룡사의 축에 따라 결정된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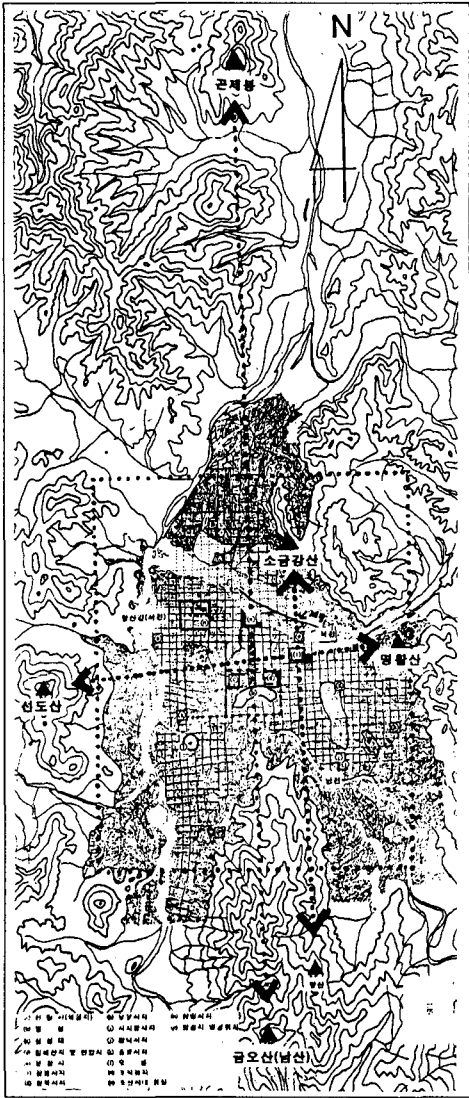
그렇다면 왕경 계획의 축을 결정한 황룡사의 축이 무엇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가 또다른 의문으로 남는다. 이러한 황룡사 축에 대해, 왕경 동쪽의 명활산과 서쪽의 선도산, 그리고 남쪽의 금오산과 북쪽의 소금강산의 정상을 연결한 교차점에 위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⁶⁾

그러나 명활산과 선도산의 정상을 연결한 축이 황룡사의 동서축에 비해 동북-서남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남북축 또한 금오산과 소금강산의 정상을 연결한 축에서 동남쪽으로 비껴나 있다.<그림 1>

1. 尹張燮, 『韓國建築研究』, 東明社, 1983, pp.254-272. 및 김왕직, 『韓國建築美學斷想』, (『民族建築美學研究』 창간호, 민족건축미학연구회, 1991.), p.74.
2. 閔德植, 尹張燮 등은 唐尺의 사용, 藤田元春, 藤島亥治郎, 金秉模 등은 東魏尺이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현재 동위척은 34.7348cm, 고구려척은 35.0571cm(尹張燮, 앞의 책, 1983., pp.261-262.) 또는 35.50-35.52cm(朴興秀, 한국 고대의 量田法과 量田尺에 관한 연구, (『度量衡과 國樂論叢』, 朴興秀先生華甲紀念論文集刊行會, 1980.), p.97)로 고증되어 있다. 앞의 동위척을 주장한 연구자들은 동위척을 35.5cm로 보고 있어 고구려척 범위에 속하고 있다. 결국 위의 연구자들이 언급한 동위척은 고구려척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
3.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四 皇龍寺丈六條. 『至己丑年 周圍墻宇 至十七年 方畢』.

4. 文化財研究所 主編, 『皇龍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1, 文化財管理局, 1984., pp.371-377. 및 尹張燮, 『韓國의 建築』, 서울大學校 出版部, 1996., p.159.
5.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 景仁文化社 影印本, 1972., p.96. 및 尹張燮, 『韓國建築史』, 東明社, 1992(1972.), p.115. 및 張慶浩, 『韓國의 傳統建築』, 文藝出版社, 1993(1992), p.144.
6. 李元教, 『傳統建築의 配置에 對한 地理體系의 解釋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建築學科 博士學位論文, 1993. 2., pp.107-111.

이렇듯 네 산의 정상을 연결한 축은, 황룡사의 위치가 그 교차점에 위치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황룡사의 좌향과 축, 더구나 신라 왕경의 구획 및 토지 분할의 근거가 되었던 축을 설정할 만한 요소로 보기에는 여전히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다.



<그림 1> 황룡사와 토지 분할 축 분석도

그런데 지적원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月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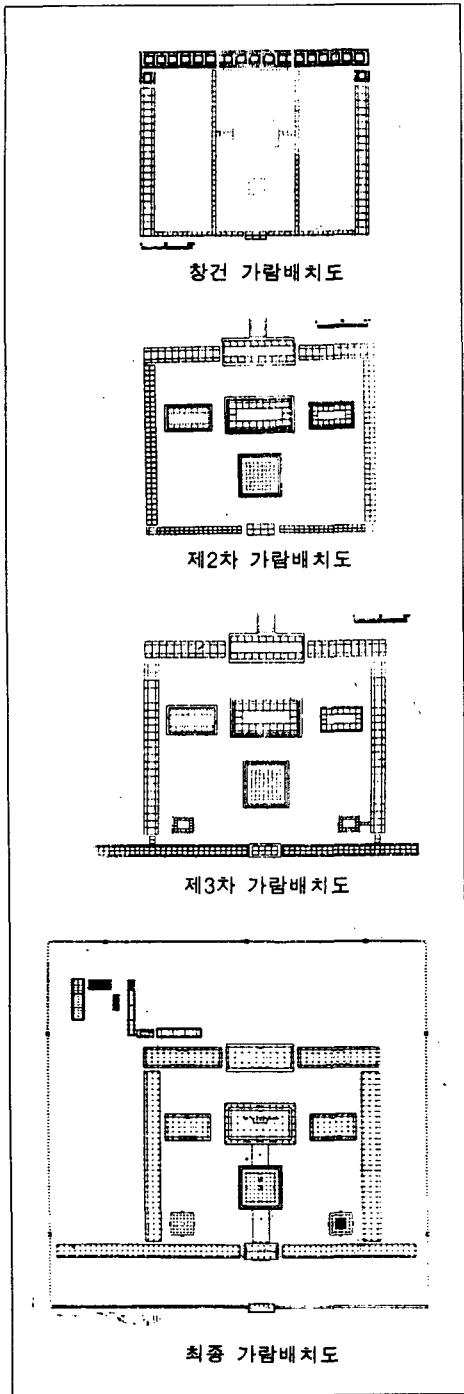
동쪽에서 시행된 토지 분할의 남북축과 일치하는 축이 확인되었다. 그것은 바로 금오산 정상과 昆弟山(現, 근계봉)을 연결한 축이 바로 그것이다.<그림 1>⁸⁾ 이 축은, 月城과 전랑지를 연결하는 남북대로⁹⁾의 서쪽 가장자리 축에 비해 서북-동남 방향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는, 동쪽 가장자리 축과 거의 일치하며 통과한다. 그리고 이 남북대로의 동쪽 가장자리 남북축은 지적원도 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월성 동쪽 부분의 토지 분할 축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 축은 다시 황룡사의 남북축과 일치하고 있다.

결국 황룡사의 남북축은, 금오산과 근계산의 정상을 연결한 축에 의해 계획된, 왕경 내의 토지 분할 축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황룡사가 왕경 내의 토지가 분할된 후에 건축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그림 1>

또 신라 왕경의 토지 구획이 황룡사 3차 중건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왕경유적지 남쪽에서 발굴된 폭 15.5m의 남쪽 동서 방향 도로가 황룡사지 남쪽 담장에서 36m의 거리를 두고 위치하지 않았을 것이다.<그림 3>

다시 말해서 황룡사의 건설이 완료된 후에 신라 왕경의 구획이나 토지 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왕경유적지에서 발굴된 폭 15.5m의 도로는 황룡사 남쪽 담장에 곧바로 면해서 건축되었을 것이다.

7. 이 산의 명칭은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東京雜記』 卷之一 山川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昆弟山 在安康縣南十五里 有雙峯並峙 形如兄弟故名」
8. 황룡사의 남북축은 소금강산 정상과 금오산 정상에서 동북쪽에 위치한 앞산 정상을 연결한 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또다시 금오산과 근계산(근계봉)의 정상을 연결한 축과 평행하다. 拙稿, 「新羅王京 慶州의 都市 計劃에 關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建築工學科 碩士學位論文, 1996. 2., pp.130-132.
9. 尹武炳, 「역사도시 경주의 보존에 대한조사,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처, 1972.), p.132.



<그림 2> 황룡사 배치 변천도
 (출전 : 文化財研究所, 『皇龍寺』, pp.272-274. 및 尹張燮, 『韓國의 建築』, p.159)

이상의 고찰을 통해 황룡사의 제3차 중건이 도시계획의 체계를 바꿀 정도로 규모가 큰 공사였지만 이미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일정한 도시 구획이나 토지 분할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라 왕경의 토지 분할이 늦어도 황룡사의 담장 축조가 끝난 569년에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49년 후인 618년에 건국된 당나라의 尺度가 신라 왕경의 토지 분할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¹⁰⁾

다음으로 신라 왕경의 토지 분할에 高句麗尺이 사용되었는가에 대해 알아보겠다.

高句麗尺은 이름 그대로 고구려에서 제정된 尺度이다. 이 尺度는 현재 高麗尺, 東魏尺 등으로 불리고 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尺度는 고대에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사용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高句麗尺은 고구려에서조차 營造用 尺으로만 사용되었으며 토지 분할이나 里程用에는 齊나라 때 들여온 指尺(19.50cm)이 사용되었다.¹¹⁾ 따라서 고구려에서조차 사용되지 않은 尺度가 신라의 토지 분할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齊나라는 周나라의 제후국이었으며, 강태공에게 주어진 封國이었다. 현재 알려져 있는, 『周禮』 가운데 「考工記」는 周나라의 제도를 춘추 시대(B.C.770~B.C.476) 때 齊나라에서 기록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¹²⁾

齊나라에서 사용하였다는 指尺은 인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그 변화의 폭이 크다. 현

10. 참고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병합한 이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척의 영향이 인정된다.
 11. 朴興秀, 앞의 책, 1980, p.97. 및 p.46.
 12. 賀業鉞, 『考工記營國制度研究』,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7., pp.175-180. 춘추시대에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하여 한나라 때 鄭玄이 註釋한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재에도 그렇지만 정확하고 공평한 租稅는 한 나라의 살림을 튼튼히 하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당시의 지배 계급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옛 문헌에서도 곧잘 볼 수 있다.¹³⁾ 이렇듯 나라 살림의 기반인 조세의 기준이 되는 토지 구획에 변화의 폭이 큰 인체를 기준으로 한 尺度를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周尺은 당시에 그 크기가 일정하게 제도로 규정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齊나라에서 시행된 토지 구획에는 指尺이 아니라 周尺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춘추시대에 『주례』를 기록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주척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고구려의 里程用尺, 즉 토지 분할에 이용한 尺度는 齊나라에서 사용하던 周尺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에서 토지 분할용 척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주척이 신라에서도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고구려와 신라는 일정 기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라 왕경의 坊名을 정한 慈悲麻立干 12년(469)¹⁴⁾을 전후한 시기는 고구려가 남하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의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하여 도성 건설을 완비하던 시기¹⁵⁾에 해당한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고구려와 신라의 밀접한 관계는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廣開土大王碑’로 알려진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碑’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十年庚子敎遺步騎五萬往救新羅……」, 즉 “10년(永樂 10년으로 서기 400년) 경자에 하교하여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어 가서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는 것이다.¹⁶⁾

이와 같은 고구려와 신라의 밀착 관계는 서로의 제도와 문화가 영향을 주고받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에서 사용되었던 周尺이 신라로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¹⁷⁾

신라에서 周尺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또다른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것은 동일한 단위의 경작지 면적에 대한 고대 중국과 신라의 조세량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일정한 尺度로 구획된 경작지 면적의 1/10에서 수확한 것을 세금으로 거두었다.¹⁸⁾ 이것은 일찍이 周나라 때 성립된 井田法을 토대로 한 조세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정전의 세법을 이상으로 하여 전체

를 수도로 사용했으며, 586년이 되어서야 모란봉 남쪽에 완비된 도시를 건설하였다. 리화선, 『조선건축사』 I, 도서출판 발인, 1993, pp.57-69.

16.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碑』, 한국방송공사, 1995.

17. 윤무병도 그의 논문에서 주척 6척을 기준으로 하여 신라왕경의 범위를 고찰하고 있어 이러한 내용을 신뢰할 수 있게 한다.尹武炳, 앞의 논문, 1972, p.131.

18. 李相楮, 「井田法:古代東洋의 理想的 國土計劃의 原理」, (尹張燮 編著, 『韓國建築史論』, 技文堂, 1994(1990).), p.304. 부가하여 설명하면, 사방 300보 면적의 땅을 9등분한 후, 이것을 8가구에 각각 사방 100보 즉, 100畝씩 나누어주고 그 나머지 하나를 公田으로 한다. 이 공전에 다시 8가구의 택지가 조성된다. 당시의 택지 면적은 가구 당 2.5畝였다.(賀業鉅, 『考工記營國制度研究』,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7(1985), p.45.의 각주 ①) 따라서 8가구 전체의 택지 면적은 20畝가 되며, 100畝에서 택지 면적 20畝를 제외한 나머지 80畝가 8가구에 한 가구 당 10畝씩 지급되므로 세금용 경작지 면적은 私田의 1/10이 된다.

13. 『孟子』卷之五 滕文公章句上 滕文公問爲國章 制三에, 「……夫人政 必自經界如 經界不正 井地不均 穀祿不平 是故 暴君汚吏 必慢其經界 經界既正 分田制祿 可坐而定也……」, 즉 ‘……어진 정치는 반드시 경계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경계가 바르지 못하면 토지가 불균등해져서 곡식이 평등하지 않게 된다. 폭군과 탐관오리는 경계 정하는 것을 소홀히 한 까닭이다. 처음부터 경계를 바르게 하면 경지와 녹봉 나누어주는 것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韓相甲 譯, 『孟子·大學』, 三省出版社, 1985.

14. 『三國史記』卷 第三 新羅本紀 第三 慈悲麻立干條. 「十二年 春正月 定京都坊里名」

15.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것은 427년이다. 이때부터 586년까지는 안학궁이 있던 대성산성과 고방산성 일대

경작지 면적에 대하여 1/10 과세를 신라 이래로 취하고 있었으며,¹⁹⁾ 신라 말과 고려 초에 이르러서도 조세량은 여전히 전체 수확량의 1/10로 유지되었다.²⁰⁾

물론 조세량이 일치한다고 하여 반드시 같은 단위로 토지를 분할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과세량과 과세 방법이 동일하다는 것은 결국 토지 분할 방법이나 尺度가 동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라의 토지 분할이 周나라의 토지 분할과 동일한 제도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도 토지를 분할하는 尺度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다.

周尺 1尺의 길이는, 19.91cm,²¹⁾ 19.778cm,²²⁾ 19.831cm,²³⁾ 19.67cm²⁴⁾ 등으로 고증되고 있으며,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19.91cm이다.

본 논문에서는 19.91cm를 1周尺으로 보고 신라 왕경의 토지 분할 尺度를 고찰한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1步가 몇 尺인가 하는 것이다. 1步는 5尺, 6尺, 6.4尺, 8尺 등으로 알려져 있다.²⁵⁾ 이것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것이 사용되었다.

일본에서는 '大寶令 雜令'에서 1步를 高句麗尺 5尺으로, 그리고 和同 6년(714) 2월 19일자 『續日本記』의 기록에는 「其度地以 六尺爲步」라 하여 唐尺 6尺을 1步로 규정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⁶⁾ 『周禮』를 註釋한 鄭玄 역시

1步를 6尺이라 했으며, 許慎의 『說文解字』 畝字條에도 「六尺爲步 步百爲畝」라고 기록되어 있다.²⁷⁾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6尺을 1步로 보고 있다. 1步는 인체 치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성인의 보통 걸음 2걸음, 즉 두 발의 각 1회 보폭을 합한 것으로서 성인의 평균 키에 해당하는 것이다.²⁸⁾ 이것을 당척과 고구려척으로 계산해 보면 唐尺 6尺 1步는 약 178cm, 高句麗尺 6尺 1步는 약 213cm가 되어 당시 성인의 평균키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감이 없지 않다.

그런데 『禮記』 「王制」,²⁹⁾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古者 以周尺八尺爲步」

즉 “옛날에는 周尺 8尺을 1步로 하였다.”는 것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禮記』의 내용은 중국과 우리 나라 및 일본에서 존중한 禮에 관계된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王制」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었다. ‘五經’ 가운데 하나인 『禮記』는 ‘小戴記’라고도 하며, 지은이가 서로 다른 글을 漢나라 때 戴聖이 모은 것이다.³⁰⁾ 齊나라는 漢나라가 건국되기 이전 국가이며, 따라서 齊나라에는 周尺 8尺을 1步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齊나라에서 사용된 尺度가 고구려와 신라에

19. 朝鮮總督府, 『朝鮮田制考』, 1940, p.2.

20. 朴興秀, 앞의 책, 1980, p.57.

21. 吳承洛, 「以圭瑣考度條」, (『中國度量衡史』), p.130. (尹張燮, 앞의 책, 1983, p.256에서 재인용.)

22. 朴興秀, 앞의 책, 1980, p.47.

23. 朴興秀, 위의 책, 1980, p.95.

24. 村上英之助, 「古代尺の中のいわゆる周尺について」, (『考古學研究』 第113輯, 考古學研究會, 1982.), p.57.

25. 朴興秀, 앞의 책, 1980, p. 171.

26. 대보령은 대보 원년인 701년에 제정된 율령으로 정치제도, 신분제도, 재정 제도 등의 개정과 제정을 통해 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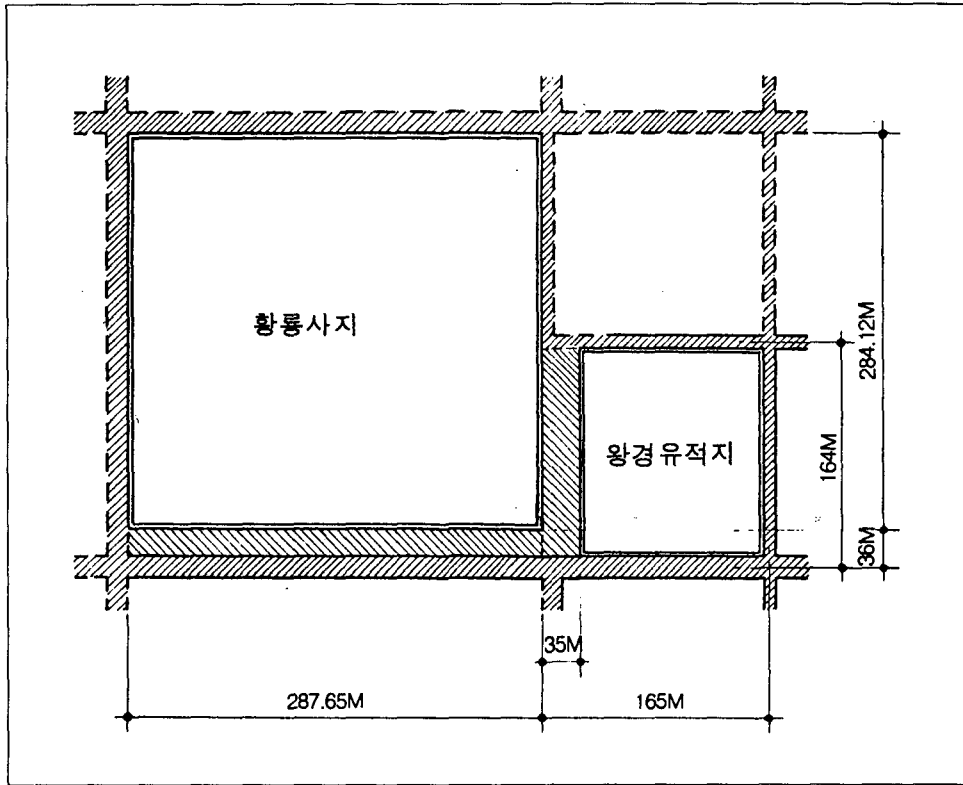
관료 국가로 진입하게 되었다.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研究論集 7』-奈良文化財研究所學報 第41冊, 1984, p.66.

27. 『周禮』 地官 司馬井田法에 대한 註. 이외에 唐나라 司馬貞의 索隱註 가운데 「六尺爲步」가 「管子」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朴興秀, 앞의 책, pp.48-49에서 재인용.

28. 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 이문과실전, 1994(1933), p.316.

29. 『禮記』 上卷 第五篇 「王制」.

30. 李民樹 譯解, 『禮記』, 惠園出版社, 1995, pp.8-17. 禮記 解題 참조.



<그림 3> 황룡사지와 왕경유적지 발굴 약도

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앞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복잡한 가정을 하지 않고도 신라에서 8尺이 1步로 사용되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사료가 있다. 그것은 바로 아래의 세 가지 사료이다.³¹⁾

- ㉠ 「金京元千毛主作北界受作 五步五尺」(毛代郡城 城壁石刻)
- ㉡ 「……受長 四步五尺一寸」(明活山城碑)
- ㉢ 「金京道○北界作 五步七尺」(毛代郡城 城壁石刻)³²⁾

31. 閔德植, 「新羅王京의 都市設計와 運營에 關한 考察」, 『白山學會』 第33號, 白山學會, 1986. 12., p.42.

32. 毛代郡城은 신라 33대 聖德王 21년(722) 10월에 축조하였고, 明活城은 實聖尼師今 4년(405) 4월 기사에 최초로 명칭이 언급된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개축

㉠과 ㉡은 1步가 5尺이 아니라는 기록이다. 만약 1步가 5尺이었다면 ㉠의 내용은 5步 5尺이 아니라 6步로, ㉡의 4步 5尺 1寸은 5步 1寸으로 기록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³³⁾

㉢은 1步가 6尺이 아니라는 기록이다. 1步가 6尺이었다면 5步 7尺이 아니라 6步 1尺으로 기록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록들은 산성을 축성한 후의 기록이므로 營造尺이 아닌 토지 분할에 사용하였던 里程用尺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 이루어지고 있다. 『三國史記』 卷 第八 新羅本紀 第八 聖德王 二十一年條.

33. 『三國史記』 卷 第三 新羅本紀 第三 實聖尼師今條에 實聖尼師今의 신장이 7尺 5寸으로 기록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토지 분할 척도와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이 기록을 통해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1보가 5척이 아니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표 1> 황룡사지와 왕경유적지의 토지 분할 척도

구분		발굴값 (m)	주척	보	복원값 (보)	오차 (보)	환산값 (m)	오차 (m)	비고
황룡사지	도로 포함 동서	322.65	1620.542	202.568	200	-2.568	318.560	-2.650	
	남북	320.00	1607.233	200.904		-0.904		-4.090	
사지 제외	도로 동서	287.65	1444.751	180.594	180	-0.594	286.704	-0.946	
	남북	284.12	1427.022	178.378		+1.622		+2.584	
왕경유적지	도로 포함 동서	164.00	823.707	102.963	100	-2.963	159.280	-4.720	
	남북	165.00	820.729	103.591		-3.591		-5.720	
사지 제외	도로 동서	127.00	637.870	79.794	80	+0.206	127.424	+0.424	
	남북	143.00	718.232	89.779	90	+0.221	143.352	+0.352	

그러므로 신라 시대에 사용된 토지 분할 尺度는 周尺(19.91cm) 8尺이 1步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내용은 『禮記』의 기록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앞서 언급한 고대의 중국 도시와 신라 왕경의 토지 분할 제도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2. 발굴 결과를 통한 坊 分割 尺度의 고찰

앞 절에서 고찰한 尺度를 바탕으로 발굴된 황룡사지 및 왕경유적지의 규모를 계산해 보겠다.<그림 3>

먼저 황룡사지를 둘러싼 담장 중심간 동서 폭은 287.65m, 남북 길이는 284.12m이다.³⁴⁾ 동서 폭인 287.65m는 周尺 1,444.751尺으로 약 180.594步, 남북 길이인 284.12m는 周尺 1,427.022尺으로 약 178.378步가 된다. 이것의 計劃尺을 周尺 180步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180步 × 0.1991 = 286.704m가 된다. 이 계산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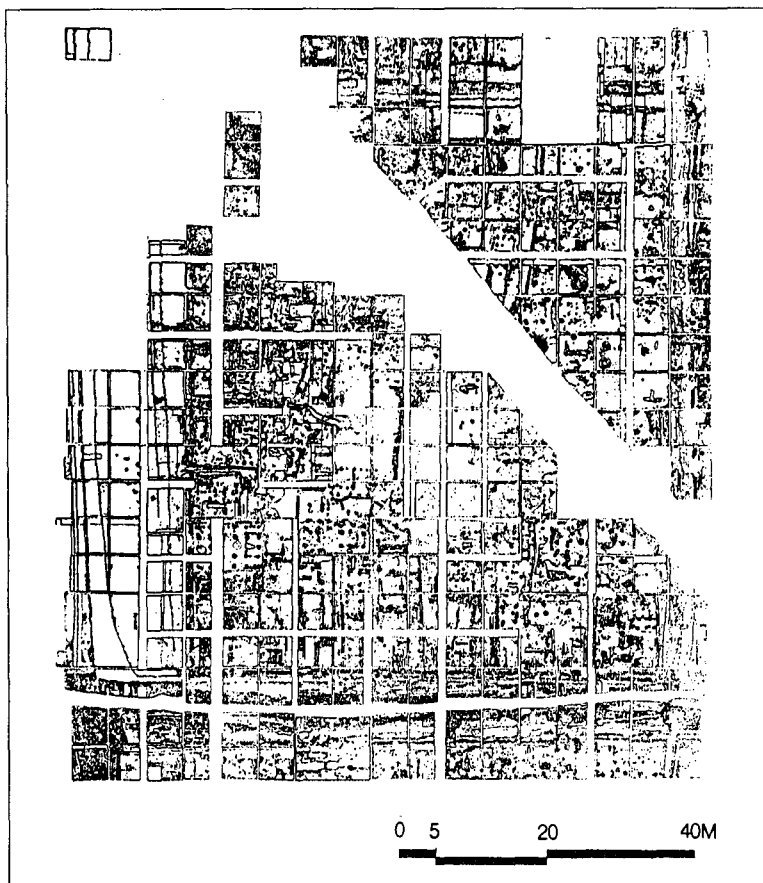
황룡사지 동서 폭에 비해 불과 0.946m가 작을 뿐이며, 남북 길이에 비해 2.584m가 클 뿐이다.³⁵⁾

왕경유적지에서 발굴된, 황룡사지 남쪽을 통과하는 15.5m 폭의 도로 중심은 황룡사지 중심에서 160m, 즉 남측 담장에서 남쪽으로 36m 거리에 위치한다.³⁶⁾ 황룡사지 북쪽으로도 남쪽을 통과하는 도로와 같은 폭의 도로가 건설되었다고 가정하면 황룡사지를 남과 북에서 통과하는 도로 중심 거리는 320m가 된다. 이것은 약 1,607.233周尺이며 200.904步가 된다. 황룡사지 동서 폭에 황룡사지 동쪽 담장과 왕경유적지 사이에 위치한 배수로 지역의 계측값인 약 35m를 가산하면 322.65m가 되며, 이것은 周尺 1,620.542尺, 즉 약 202.568步가 된다. 여기에서

34. 文化財研究所 主編, 앞의 보고서, 1984, pp.104-105.

35. 『皇龍寺』 遺蹟發掘調查報告書 1에서는 동서의 길이를 958.65東魏尺 즉, 159.7895步, 남북의 길이를 946.97東魏尺 즉, 157.828步라고 하였다.(文化財研究所 主編, 同報告書, 1984, pp.104-105.) 여기에서 계획적을 완수인 160步라고 가정하면 두 길이의 오차 평균은 0.00745가 된다. 반면 본 논문의 <표 1>에 정리되어 있는 오차의 평균은 0.00625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계산값이 신뢰도가 더 높다.

36. 慶州文化財研究所, 『王京遺蹟 發掘調查 指導委員會 會議資料』, 1996. 11., p.2.; 『年報』 創刊號, 1991., p.12.



<그림 4> 왕경유적지 발굴도면
(출전 : 慶州文化財研究所, 「會議資料」, 1996. 11.)

황룡사지가 도로를 포함하여 도로 중심간 거리가 周尺 200步로 계획되었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면 318.56m가 된다. 이 값은 황룡사지의 도로 중심간 동서 폭에 비해 2.65m, 남북 길이에 비해 4.09m가 작을 뿐이다.

이상에서 계산한 값을 통해, 도로를 제외한 황룡사지의 크기는 약 180步이며, 도로를 포함한 크기는 약 200步로 계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왕경유적지의 규모에 대해 계산해 보겠다.<그림 4>

왕경유적지 동편에 위치한 폭 5.5m의 남북

방향 도로는 황룡사지 동편 담장에서 동으로 164m, 즉, 황룡사지 중심에서 294m 동편 지점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왕경유적지의 남쪽과 북 쪽을 통과하는 동서 방향 도로의 중심 거리는 165m이다.³⁷⁾ 도로를 포함한 왕경유적지의 동서 폭인 164m는 周尺 823.707尺, 즉 102.963步가 되며, 남북 길이인 165m는 周尺으로 802.729尺, 즉 103.591步가 된다. 이렇게 계산된 값은 대체로 100이라는 완수에 수렴하고 있다. 그러므로 왕경유적지의 계획이 周尺 100步로 계획되었다고 볼 수 있다. 周尺 100步는

37. 慶州文化財研究所, 위의 자료, 1996. 11., pp.2-3.

159.28m가 되는데, 이 계산값은 도로를 포함한 동서 폭에 비해 4.72m, 남북 길이에 비해 5.72m가 작을 뿐이다.

북쪽의 폭 5.5m 도로와 담장 사이의 공지를 제외한, 도로와 내부를 구획하는 담장間 남북 거리는 약 143m이며, 서쪽 배수로 지역과 동쪽의 폭 5.5m 도로를 제외한 동서 폭은 127m로 계측된다. 이들을 周尺으로 계산하면 남북은 718.232尺으로 89.779步, 동서는 637.870尺으로 79.794步가 된다. 이 값들은 周尺 90步(143.352m)와 80步(127.424m)로 환산할 수 있다. 이렇게 환산한 값은 남북으로 0.352m, 동서로 0.424m가 클 뿐이다.

이상에서 황룡사지는 왕경유적지 면적의 4배이며, 도로를 제외한 구획은 周尺 90步를 단위로, 도로를 포함한 구획은 周尺 100步를 단위로 구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단위는 왕경유적지의 토지 분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2-3. 정전법을 통한 坊의 尺度 고찰

신라에서는 일찍부터 조세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그것은 다음의 기록³⁸⁾에서 확인된다.

「五月 國西大水 免遭水州縣 一年租調」

즉, 奈解尼師今 3년(198) “5월에 나라 서쪽에 큰물이 났는데, 수재를 당한 주와 현에 대해 1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는 내용이다.

이전까지의 기록에서는 주로 자연 재해 등에 대한 대책으로 창고를 열어 백성을 도와주는 것이었다가, 이때의 기록에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이 당시 세금은 주로 경작지에서 거두어들인 것³⁹⁾이었으므로 경작지에 대한 조세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위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조세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것은 경작지가

일정한 제도를 통해 분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라의 토지 제도는 頃畝制와 結負制가 병용된 것이었다.⁴⁰⁾ 여기에 보이는 경과 결, 무와 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해석이 내려지지 않고 있으나, 대체로 경과 무는 중국에서와 같이 넓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와 결은 수확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⁴¹⁾ 이것으로도 신라 토지 제도와 고대 중국의 토지 제도와와의 관련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관계를 밝히기 위해 周나라의 토지 제도(量田法이라고 하며, ‘井田法’으로 통칭되고 있다.)의 면적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왕경 지구의 발굴값과 비교해 보겠다.

周나라에서 시행되었던 토지 분할 제도인 정전법의 면적⁴²⁾을 계산해 보면,

$$\begin{aligned} 1步 &= 周尺 8尺 \\ 四方1步 面積 &= 8尺 \times 8尺 = 64尺^2 \\ 1畝 &= 四方10步 = 100步^2 = 100 \times (8尺)^2 = 6,400尺^2 \\ 1頃(또는, 夫) &= 四方100步 = 100畝 = 640,000尺^2 \end{aligned}$$

이 된다.

이것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begin{aligned} 기준 量田尺 &= 1周尺 = 19.91cm \\ 1步 &= 8尺 = 159.280cm \\ 四方1步 面積 &= 64尺^2 \\ 1畝 &= 10步 \times 10步 = 6400尺 \times (1.991m)^2 \\ &= 253.701m^2 \\ 1頃(夫) &= 100畝 = 1結 = 253.701m^2 \times 100 \\ &= 25,370.118m^2 = (159.279m)^2 \end{aligned}$$

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의 면적을 제외한 것이므로 전체 면적 가운데 도로 면적으로 볼 수 있

38. 『三國史記』 卷 第二 新羅本紀 第二 奈解尼師今 三年條
39. 白南雲, 앞의 책, 1994(1933), p.287.

40. 白南雲, 위의 책, 1994(1933), p.288.
41. 朴興秀, 앞의 책, 1980., pp.104-105.
42. 朴興秀, 위의 책, 1980., pp.89-95.

는 10%⁴³⁾를 더하여 계산하면,

$$25,370.118m^2 + 2,537.012m^2 = 27,907.129m^2 = (167.054m)^2$$

이 된다.

이 계산값은 坊을 둘러싼 도로 중심간 동서·남북의 크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왕경유적지의 도로 중심간 동서 크기에 3.054m, 남북 크기에 2.054m, 그리고 동서·남북 크기의 평균값인 164.5m에 불과 2.554m가 클 뿐이다.

이처럼 계산값과 실제 발굴된 값이 근사치를 이루는 것은 周나라의 토지 분할과 신라의 토지 분할이 동일한 단위 및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까지 살펴본 신라의 토지 구획이 周尺 8尺(1步)이 기본 단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주는 것이다.

2-4. 도로의 尺度 고찰

도로의 尺度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당시 수레의 폭을 알아보자. 신라 왕경의 토지 분할과 周나라 제도의 관련성은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신라 왕경 도로의 尺度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로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周나라의 도로 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周禮』 「考工記」 匠人條에는 도로의 폭에 대해, 9軌路, 7軌路, 5軌路, 3軌路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軌는 수레바퀴의 간격으로서, 周나라의 수레바퀴 간격은 6.6尺이며 바퀴를 고정하는 장치인 旁을 감안하여 좌우로 각각 7寸씩 더 넓혀야 하므로 수레 1대의 전체 폭은 결국 周尺 8尺이 된다.⁴⁴⁾ 周나라 제후국 가운데 하나였던 魯나라의 도성이 위치했던 曲阜 유적 조사에서 드러난 남북 방향 대로의 폭인 15m⁴⁵⁾를 周나라 수레폭인 周尺 8尺 즉, 1.59m로 나누어 보면 9.4로 계산된다. 이것은 곡부의 도로가 『周禮』의 제도에 따라 9대의 수레가 다닐 수 있는 폭으로 계획되었으며, 당시의 수레폭이 8尺이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라 시대의 수레폭에 대해 알아보겠다. 자비마립간 13년(470)에 축조한 삼년산성 서문지에서 수레바퀴가 통과할 수 있게 문지방 윗면을 파 놓은 폭 1.66m의 흔적이 발견되었다.⁴⁶⁾ (이하, 삼년산성 수레) 이보다 앞서 訥祗麻立干 22년(438)에 牛車法을 제정⁴⁷⁾하였으므로 삼년산성에서 발견된 수레의 폭은, 당시 우차법에 따라 제작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수레의 폭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수레폭을 통해 왕경유적지에서 발굴된 도로의 폭을 계산해 보자. 먼저 周尺 8尺(周나라 수레 1대의 폭)으로 나누어 보면, 폭 15.5m 도로는 9.73, 폭 5.5m 도로는 3.45, 월성해자 발굴에서 드러난 폭 9m 도로⁴⁸⁾는 5.65가 되며, 삼년산성 수레의 폭으로 나누어 보면, 폭 15.5m의 도로는 9.34, 폭 5.5m의 도로는 3.3, 폭 9m 도로는 5.42로 계산된다.

그러나 수레의 바퀴를 고정하기 위해서 수레의 축이 연장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삼년산성

43. 朴興秀는 韓百謙이 쓴 『久庵遺稿』 가운데 「箕田遺制設」의 箕田圖를 토대로 평양의 구획을 연구하여 3畝路와 1畝路가 箕田 전체 면적의 1/10을 차지하므로, 1畝의 면적인 64畝에 도로 면적인 10%를 포함한 면적은 70畝 4分이 된다고 하였다. 朴興秀, 앞의 책, 1980., pp.100-101. 기전도를 보면 1구역은 3무로에 의해 구획되고 있다. 이 도로는 이웃하는 구역끼리 공유하게 되므로 구역을 둘러싸는 도로의 전체 면적은 약 6무가 되며 또 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가 있어 朴興秀의 고찰이 옳다고 생각된다. 신라왕경의 도로도 고구려와 같은 방법으로 구축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잠정적으로 朴興秀의 견해를 따랐다.

44. 國土開發研究院, 『周禮考工記(抄)』, 1982., p.14. 및 賀業鉅, 앞의 책, 1987., pp.131-134.; 『中國古代城市規劃史』, 中國工業出版社, 1996., p.195. 및 李允鈺, 『華夏意匠』, 廣角鏡出版社, 1982., p.403.

45. 賀業鉅, 앞의 책, 1996., p.203.

<표 2> 도로폭 및 분할 척도

(尺은 周尺)

도로폭		15.5m	15.376m (계산값)	9m	5.5m
나 눈 목	주척8척 (1.593m)	9.731	9.653	5.650	3.453
	삼년산성 수레폭(1.66m)	9.337	9.263	5.422	3.313
배수로(0.7~1.2m) 중심간 거리		81.366~ 83.887척	80.743~ 83.255척	48.719~ 52.231척	31.140~ 33.651척
복원값		9계로		5계로	3계로
주척으로 계산한 도로 폭		14.353m		7.965m	4.778m
삼년산성 수레폭으로 계산한 도로폭		14.940m		8.300m	4.980m

수레의 실제 폭은 1.66m 보다 컸을 것이다. 그렇다면 9.34, 3.3, 5.42 등의 결과치는 완수인 9, 3, 5에 더 가까워지게 된다.⁴⁹⁾

왕경유적지에서는 도로와 나란한 방향으로 石築되어 있는 배수로나 발굴되었다. 발굴 결과에 따르면 도로변에 위치한 배수로의 폭은 70~120cm정도이며, 周尺으로 계산하면 3.516~6.027尺이다.

이것을 발굴된 도로 폭인 15.5m와 함께 계산하면, 먼저 배수로 중심간 거리는 16.2~16.7m가 되며 배수로 바깥 가장자리간 거리는 16.9~17.9m가 된다. 이 거리를 周尺으로 계산하면

배수로 중심간 거리는 81.366~83.887尺으로 10.171~10.485步가 되며, 배수로 바깥 가장자리간 거리는 84.882~89.905尺으로 10.610~11.238步가 된다. 여기에서 배수로 중심간 거리가 약 10步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복원할 수 있다.

그리고 5.5m의 도로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배수로 중심간 거리는 6.2~6.7m이며, 배수로 가장자리간 거리는 6.9~7.9m이다. 이것을 周尺으로 계산하면 배수로 중심간 거리는 31.140~33.651尺 즉, 3.893~4.206步이고 배수로 가장자리간 거리는 34.656~39.679尺 즉, 4.332~4.960步가 된다. 여기에서 배수로 중심간 거리가 약 4步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복원할 수 있다.

월성해자 발굴에서 드러난 폭 9m 도로 변의 배수로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그 내용이 없으

49. 고구려 平壤神社前城門址에서도 수레의통행을 위해 패어 진흙이 발굴되었다.(朝鮮古蹟研究會, 『平壤萬壽臺及其附近의 建築物址』, 『昭和十二年度 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38.), pp.77-79.) 도면을 통한 측정값은 바퀴의 중심 간격이 약 1.42~1.45m, 외곽 폭이 약 1.65m이며, 바퀴의 폭은 약 26~28cm정도이다. 평양의 대로 폭은 약 13.8~14m 정도이다.(이왕기, 『북한에서의 건축사 연구』, 도서출판 발언, 1994., pp.183-187.) 이것을 평양신사전 성문지에서 발굴된 수레의 폭으로 나누어 보면 그 값이 8.49~9.86 정도로 계산된다. 이 역시 신라의 도로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수레 9대가 다닐 수 있는 폭이다.

46. 成周鐸, 『新羅三年山城研究』, (『百濟研究』 第7輯, 1976.), pp.33-35. 참고로 『三國史記』 雜誌第二 車騎條에 의하면 신라의 6두품 이상은 수레를 이용했다고 한다. 이 수레는 1-2인 승의 작은 수레로 생각되며 소나 말을 이용하던 화물 운반용 수레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47. 『三國史記』 訥祗麻立干 二十二年條.

48. 慶州文化財研究所, 『年報』 4, 1994., p.23.

나, 동일한 배수로의 폭을 적용하여 계산해 보면 周尺 48.719~52.231尺 즉, 6.089~6.404步가 되며, 따라서 약 6步로 복원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신라의 도로폭 또한 주나라의 도로폭과 동일한 제도에 근거한 것이며, 신라 왕경의 토지 분할이 周나라의 토지 분할과 동일한 제도에 근거를 두고 周尺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3. 결론 : 종합정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의 살림을 튼튼히 하는 기초는 조세 제도에 있다. 조세에서 경작지의 산물 즉, 穀類 및 織物의 원료 등 현물세가 주류를 이루던 고대의 조세 제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경지 면적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토지 분할 尺度에 대한 이해는 古代史를 이해하는 기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토지 분할 尺度의 중요성은 고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토지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고대 중국의 周나라에서 확립된 것이 조금씩 변형되면서 적용되었으며, 고대 동양 삼국에서는 토지의 분할뿐 아니라 도시의 영건도 이 제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때 토지 분할의 기본이 되는 尺度를 알게 되면 도시의 기본적인 분할과 규모를 알 수 있게 되며, 도시의 기본적인 분할과 규모를 알게 된다는 것은 택지의 분할과 규모를 알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정확한 사료가 남아 있지 않은 고대 도시의 구조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토지를 분할하는 尺度에 대한 이해는 도시를 구획하는 근본이었던 만큼 더욱 중요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신라 왕경의 토지 분할 尺度를 사료와 신라 왕경 경주에 대한 발굴 결과를 통해 고찰하였다.

고찰에 앞서 현재 신라 왕경의 토지 분할 尺度로 唐尺, 또는 高句麗尺 6尺 1步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다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신라 당시 왕경의 토지 구획에 周尺이 사용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신라 왕경에서는 토지 분할의 기본 단위인 1步가 6尺으로 구성되었던 것이 아니라 8尺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사료와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렇게 밝혀진 尺度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진 발굴 결과를 통해 신라 왕경의 토지 분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황룡사지의 크기는 도로를 제외한 것이 약 180步였으며 도로를 포함한 크기는 약 200步로 계산되었다. 이것은 실제 발굴값과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일 뿐이어서 신라 왕경의 토지 분할에 周尺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황룡사지 동남쪽에서 발굴된 왕경 유적지의 도로폭을 제외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방 자체의 크기는 동서가 80步, 남북이 90步로, 도로폭을 포함한 동서와 남북의 크기는 100步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신라 왕경의 토지 분할은 도로를 포함해서 100步가 그 기준이며, 도로를 제외하면 90步가 전체 크기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고대 周나라의 토지 분할 방법인 井田法의 도로 중심선 안쪽 면적을 미터법으로 계산하여 $(167.054m)^2$ 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발굴된 왕경유적지의 도로를 포함한 동서 길이인 164m와 남북 길이인 165m에 근사값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周禮』 考工記 匠人條에 기록되어 있는 도로폭과 삼년산성에서 발견된 신라의 수레폭을 토대로, 왕경유적지에서 발굴된 도로의 폭을 검토하여 신라 왕경의 도로가 『周禮』 考工記 匠人條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9대, 5대, 3대의 수레가 통행할 수 있는 폭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 가운데 15.5m의 도로는 배수로 폭을 포함하여 약 80尺 즉, 10步로

계획된 것으로 복원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신라 왕경에는 7대의 수레가 통행할 수 있는 7軌路도 계획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신라 왕경의 도시 계획과 택지의 구획, 그리고 신라 시대 살림집의 규모 등에 대한 연구는 발굴 자료 및 기초 사료가 빈약하여 그다지 큰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살림집의 형식은 택지 구조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신라 왕경에 대한 발굴이 계속 진행되어 신라 시대의 택지 구조가 자세히 밝혀진다면 『三國史記』의 가사제한령인 ‘屋舍條’와 비교 고찰함으로써 신라 시대 살림집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보다 정확한 택지의 區劃法과 區劃 尺度의 고찰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앞으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분야이다.

參 考 文 獻

1. 金富植 : 『三國史記』
2. 一 然 : 『三國遺事』
3. 朝鮮光文會, (國學刊行會) : 『東京雜記』, 民俗苑, 1992.
4. 白南雲 : 『朝鮮社會經濟史』, 이론과 실천, 1994(1933).
5. 朴興秀 : 『度量衡과 國樂論叢』, 朴興秀先生華甲紀念論文集刊行會, 1980.
6. 리화선 : 『조선건축사』 I, 도서출판 발언, 1993.
7. 이왕기 : 『북한에서의 건축사 연구』, 도서출판 발언, 1994.
8. 尹張燮 : 『韓國建築研究』, 東明社, 1983.
9. _____ : 『韓國建築史』, 東明社, 1992(1972).
10. _____ : 『韓國의 建築』, 서울大學校 出版部, 1996.
11. 張慶浩 : 『韓國의 傳統建築』, 文藝出版社, 1993(1992).
12. 尹武炳 : 「역사도시 경주의 보존에 대한조사」,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관한연구』, 1972.
13. 김왕직 : 「韓國建築美學斷想」, 『民族建築美學研究』 장간호, 민족건축미학연구회, 1991.
14. 成周鐸 : 「新羅三年山城研究」, 『百濟研究』 第7輯, 1976.
15. 閔德植 : 「新羅王京의 都市設計와 運營에 關한 考察」, 『白山學報』 第33號, 白山學會, 1986. 12.
16. 韓相甲 譯 : 『孟子·大學』, 三省出版社, 1985.
17. 藤島亥治郎 : 『朝鮮建築史論』, 景仁文化社 影印本, 1972.
18. 李氏樹 譯解 : 『禮記』, 惠園出版社, 1995.
19. 李丙燾 譯註 : 『三國史記』(上)·(下), 乙酉文化社, 1995(1983).
20. _____ : 『三國遺事』, 明文堂, 1992.
21. 尹張燮 編著 : 『韓國建築史論』, 技文堂, 1994(1990).
22. 한국방송공사 :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碑』, 1995
23. 文化財研究所 : 『皇龍寺』 遺蹟發掘調查報告書 1, 文化財管理局, 1984.
24. 國土開發研究院 : 『周禮考工記(抄)』, 1982.
25. 慶州文化財研究所 : 「王京遺蹟 發掘調查 指導委員會 會議資料」, 1996. 11.
26. _____ : 『年報』 創刊號, 1991.
- _____ : 『年報』 4, 1994.
27. 李允錫 : 『華夏意匠』, 廣角鏡出版社, 1982.
28. 賀業鉅 : 『考工記營國制度研究』,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7.
29. _____ : 『中國古代城市規劃史』, 中國工業出版社, 1996.
30. 朝鮮總督府 : 『朝鮮田制考』, 1940.
31. 村上英之助 : 「古代尺の中のおいゆる周尺について」, 『考古學研究』 第113輯, 考古學研究會, 1982.
32. 朝鮮古蹟研究會 : 『昭和十二年度 古蹟調查報告』, 朝鮮總督府, 1938.
33.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 『研究論集 7』-奈良文化財研究所學報 第41冊, 1984.

34. 李元教：「傳統建築의 配置에 對한 地理體系的 解釋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建築學科 博士學位 論文, 1993. 2
35. 禹成勳：「新羅王京 慶州의 都市計劃에 關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建築工學科 碩士學位論文 1996. 2

A Study on the Standard Scale of Measuring a Block of *Kyongju*, the Capital of the *Silla* Dynasty

Woo, Seong Hoon

(Graduate School of Sung Kyun Kwan University, Graduate Student)

Lee, Sang Hae

(Sung Kyun Kwan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ndard scale of measuring a block of *Kyongju* (慶州), the Capital of the *Silla* Dynasty(B.C.57~A.D.935).

Through the study, it is clarified that 1). the block of *Kyongju* city is planned and divided by using the eight-*Zhou*-foot(周尺) as a standard scale, which is equivalent to the length of one-*bo* (步); 2). the distance between the center of the streets is around 100 bo and the width of the block is around 90 bo; 3). the distance between the streets is very near to the distance 167.054m of *Jing-tian-zhi*(井田制), which supports the use of *Zhou*-foot as a standard scale.

As a result, it can be maintained that the city planning of *Kyongju* is related to that the *Jing-tian-zhi* of the *Zhou* Dynasty and the standard scale of measuring a block of *Kyongju* is executed by using the eight-*Zhou*-foot standard scale.